

9x22

청소년인권자료집



청소년의 감수성으로 교사를 고민하다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 Yoko Ono

아이들, 어른들, 모두가 함께

꿈을 꾸고,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27대 사범대 학생회



청소년의 감수성으로 교사를 고민하다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 Yoko Ono

#prologue	청소년의 감수성으로 교사를 고민하다	... 3
#1	인권은 고문 앞에서 멈춘다(학생인권침해 사례)	... 5
#2	훌륭한 교사를 꿈꾸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15
#3	교육과 비폭력	... 17
#4	청소년의 공간을 찾아서	... 21
#5	'교사틱함'을 넘어	... 27
#6	예비교사 어린이. 청소년인권연대선언	... 28
#epilogue	"Fly 예비교사 Fly" with 청소년	... 30

#prologue	청소년의 감수성으로 교사를 고민하다	... 3
#1	인권은 고문 앞에서 멈춘다(학생인권침해 사례)	... 5
#2	훌륭한 교사를 꿈꾸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15
#3	교육과 비폭력	... 17
#4	청소년의 공간을 찾아서	... 21
#5	'교사틱함'을 넘어	... 27
#6	예비교사 어린이. 청소년인권연대선언	... 28
#epilogue	"Fly 예비교사 Fly" with 청소년	... 30

#prologue	청소년의 감수성으로 교사를 고민하다	... 3
#1	인권은 고문 앞에서 멈춘다(학생인권침해 사례)	... 5
#2	훌륭한 교사를 꿈꾸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15
#3	교육과 비폭력	... 17
#4	청소년의 공간을 찾아서	... 21
#5	'교사틱함'을 넘어	... 27
#6	예비교사 어린이. 청소년인권연대선언	... 28
#epilogue	"Fly 예비교사 Fly" with 청소년	... 30

#prologue

청소년의 감수성으로 교사를 고민하다

주형

(밝히지만 이것은 이번 자료집 기획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감수성을 지금이야 비로소 조금씩 말로 풀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제가 얻은 것들 중 그나마 제대로 된 녀석은 그것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별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고민을 하고 대학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점 제 생각과 감수성을 풀어낼 수 있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인권'이었습니다만, 저는 이내 곧 생각을 흐트렸습니다.

'지금의 내가 과연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오랜 시간동안 개인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은 내가, 그런 억압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만큼 강하게 이야기해낼 수 있을까?'

당시 저는 이런 스스로의 고민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결국 '청소년인권'이라는 화두를 저는 머릿속 한 칸으로 몰아 버리고는 여전히 길 찾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화두가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은 여름방학 때 있었던 한 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서였습니다.

"파란만장 청소년 인권 캠프"는 청소년인권 활동가 네트워크의 주최로 7월 26일, 27일 양

일간 진행된 행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참가한 목적은 그저 보통의 탐색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활동들을 생각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게 그저 찾아간 자리에서 제게 궁극적으로 '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은 그 자리에 참여한 청소년 활동가들이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청소년들과 똑같이 그들만큼 강력히 주장하기는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요즘도 함께 일정을 결합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의 저런 질문을 접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공감하고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비단 청소년인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음이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함께 할 수 있음이 아닐까."

이번 자료집을 기획함에 있어서 글을 써주신 분들께 부탁드린 것은 '예비교사에게 부담을 실어주는 글'이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앞으로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현재 교사의 입장에서 앞으로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청소년인권 쟁취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활동가가 앞으로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청소년인권을 고민하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대답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훌륭한 교사를 꿈꾸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병헌 씨는 '이 사회에 훌륭한 선생님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위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함으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교육과 비폭력〉에서 이계삼 선생님은 청소년 인권을 교육과 비폭력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얹'을 통해 비폭력과 사랑이 시작되므로 '교실 바깥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사틱함'을 넘어〉에서 윤종 씨는 '교사틱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교사가 아니라 '교사답지 않은 사람'이 가장 '좋은 교사'에 가까울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분의 글을 읽으며 그분들의 고민들이 맞닥뜨리는 지점을 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청소년을 괴롭히는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는 좋은 교사'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폭력을 고민하고 그럼으로 교사틱한 교사가 되지 않기를 고민하는 사람이 좋은 교사'라는, 한편으로는 역설적이지만 그 것이 쉽지 않은 길이기에 더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부담감 속에 희망도 같이 보였으면 합니다. '어둠을 탓하기 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밝히는 것이 훨씬 가치롭습니다.' 이번 자료집이 우리 모두에게 한 자루의 촛불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 학생인권침해 사례



(최순영 의원실 국정감사자료에서 발췌)


학교	침해 사례
행당중학교 (서울 성동구)	새 교장이 매일 아침 순회를 돌며 욕설. 5월 중순 경 "두발자유"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교장이 불려서 혼내고 손으로 체벌. 교장은 체벌 기본이 8대. 학생이 컴퓨터를 켜다가 도망가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욕설과 함께 싸대기를 6~7대 정도를 때림.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신체를 직접 이용한 체벌. 학교가 끝나도 교문 앞에 지키고 서서무조건 3시 10분까지 학생들을 못 나가게 함.
양동중학교 (서울 양천구)	학내시위가 있는 이후 교사들은 학생들 움직임을 무마시키려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였으나 공청회를 열지는 않음. 교문 앞에서 두발단속하여 걸리면 오리걸음 한 바퀴. 2006년 6월 27일 체육교사가 아침에 강제이발.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수업을 못 받게 하고 머리를 자르게 하고 온 경우도 있음. 학교홈페이지에 두발자유 문제로 글을 올린 학생을 아침 등교시간에 교문 앞에서 학생부 교사가 부르고 "사악하다."라는 표현, 그 외 부모 비하 등 여러 욕설. 교감이 그 자리에서 교무실로 쫓 오라고 했으나 학생이 거부하자 학생부 교사와 교감이 심한 욕설. "야 이새X야. 선생님이 불려서 내려가는 건 무조건 내려가야되는 의무야 새X야. 넌 권리만 있는지 알지? 야 이 새X야. 이걸 권리가 아니라 의무야 새X야!" 등등. 2006년 9월 학생들의 요청을 받은 청소년인권단체의 '스쿨어택' 등으로 압력을 받아 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 진행 중.
옥정중학교 (서울 성동구)	1 전교 어린이회에서 두발자유를 요구했으나 교사들이 강압하여 다소 완화되는 정도에 그침. 규정은 구레나룻은 컷볼까지, 뒷머리는 교복 와이셔츠가 안 닿는 것이나 소위 귀두 컷이 아닌 이상 가차 없이 밀고 있음. 생활지도부 집중 단속기간에 가위로 구레나룻 강제이발당한 사람이 많음. 2 설문조사를 강제로 시키고 그것을 명분으로 강제이발함. 3 두발단속에 걸리면 체벌, 부모에게 연락, 강제이발. 2006년 6월 13일에도 실제로 강제이발 당함. 구레나룻과 뒷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이유로 짧게 잘라버림. 제보자는 머리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싫고, 학생주임 선생님과 생활지도부 선생님들만 보면 피해 다니다보니 순간 친구와 마주치거나 학생주임 선생님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 분만 봐도 흠칫 흠칫 놀래곤 한다고 호소.
영서중학교 (서울 구로구)	교사가 "두발자유" 배지를 달고 다니는 학생을 흥분해서 교문에서부터 끌고 다니며 쓰레받기와 소화기 등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함. 당한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카운슬링 받고 있음.
양화중학교 (서울 영등포구)	학생주임이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이 씨벌놈들!! 머리짜르라니깐 말도 존나게 안들어 씨벌놈들!!"이라고 욕설하며 가위로 학생회장 머리부터 구레나룻을 잘라버림. 교실 사이를 오가며 머리 한 번씩 잡아보다가 맘에 안 들면 바로 강제이발. 남학생들 구레나룻과 뒷머리가 주로 잘림. 학생주임은 항상 "씨벌놈이"를 입에다가 달고 살며 수업시간에 학생회장(남성)에게 "저새끼 불알을 찔라다가 불에 구워서 소스발라 먹어야지"라고 함. 여학생들에게도 개년, 씨벌년 등 욕설을 항상 하고, 문제아들은 말을 안듣네, 개 갈네, 옛 갈네, 라고 욕설. 학생주임은 체벌을 여학생들 귀싸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남학생들에게 '니킵'을 하기도 함. 하복 입을 때 춘추복 입었다고 귀싸대기 때렸음. 매 없이 손발로 주

	로 머리를 때림. 음악교사는 철들라고 하면서 상습적으로 체벌. 장구채로 등짝을 때리거나 싸대기를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학생의 정수리를 때린 일이 있음. 어떤 1학년 남학생이 지각을 했는데 머리가 좀 긴 것을 보고 음악선생이 자르라고 했으나, 남학생이 자르기 싫다고 하자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하다가 학 내 팽개침.
신동중학교 (서울 양천구)	축구부가 2006년 8월 29일 아침에 연습을 하던 중, 교감이 축구부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더니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을 데려왔음. 생활지도부장은 24명을 모두 2층 교무실로 데려가서 머리길이를 이유로 두발규정에 걸리지 않는 학생도 벌점을 주고, 당구채 뒤쪽보다 약간 긴 특수제작 매로 체벌. 체벌을 당하느라 수업시간에는 늦었고 머리를 자르라는 협박을 들었음. 그리고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축구부 아침모임 금지. 평소에도 학주가 가위로 남학생들 머리를 자르고 싸대기를 때림. 작년에 두발자유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자 학교측에서 "학생과의 협의에 의해 두발규제의 정도를 정하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나 학생들이 완전자유를 요구하자 이를 묵살하였고, 대의원 회의에서 뒷머리 15cm, 윗머리 무제한, 앞머리 눈썹까지의 협의안을 내놓았으나, 잠깐 규제 완화되었다가 생활지도부장 바뀌고 나서 다시 윗머리 7cm, 뒷머리 2cm로 일방적으로 바뀜.
은곡공업고등학교 (서울 노원구)	두발규제 심함. 규정에 있는 머리보다 짧아도 교사 눈에 머리가 길다고 생각되면 잘라오라고 하고 체벌함. 주로 체육교사가 손으로 싸대기 때림. 내일까지 잘라오라고 하면서 여러 대. 한 반 2명이 1주일동안 하는 주번은 40분 먼저 학교 등교해서 학교 청소. 만약 지각하면 동등이로 60대 체벌. 8시 전엔 학생부장이 교문을 지키고 있는데. 눈에 띄면 일단 맞고 지각해서 또 60대 맞고 주번 된 일주일엔 맞으면서 살아야 함.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서울 노원구)	사립이라는 핑계로 두발규제 완화요구를 묵살. 작년 두발규제완화를 위해 학부모까지 전부 소환해서 회의를 가졌지만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은 모두 무시. 완화가 됐다곤 하지만 뒷머리 1cm였던 것이 3cm로 바뀌었을 뿐. 귀 덮으면 안 되고 앞머리는 7센치. 게다가 2005년 말 학생부 박한구 교사가 바리깡 들고 교실 돌며 머리 긴 학생들 강제이발.
서울동성고등학교 (서울 종로구)	(오병헌 씨의 1인시위 이후 상황만 담음.) 쉬는시간에 학생들 가둬두곤 교실 돌면서 두발단속. 직업반의 경우 강제이발 행해짐. 2006년 9월 1학년들에게 강제이발 있었음. 학생회장 선거에 내신50% 제한. 강제로 보충수업하는 반이 있음. 징계를 받게 될 때에 학생이 변론할 기회가 교칙에서는 보장되지 않음. 징계위원회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강제작성됨.
성보고등학교 (서울 관악구)	두발 규정 윗머리는 귀밑1cm, 뒷머리는 카라 밑 1cm. 음악교사가 길다고 하면서 무조건 스포츠형의 머리를 강요. 머리가 길면 체벌하거나 음악실기점수를 깎음. 학생회에서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음.
용산고등학교 (서울 용산구)	두발규정은 거의 반삭인데 앞머리만 좀 길게 되어 있음. 교문 앞에서 두발단속 및 용의복장 검사해서 기합과 체벌이 심함. 교문에서 가방이 가벼워보이거나 책이 3권 이하 들어있는 듯하면 가방열고 소지품 검사.
경희고등학교 (서울 동대문구)	보충수업은 선택이지만, 야간자율학습은 강제로 시킴. 2006년 9월 15일날, 야간자율학습 도망간 사람들을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꿇고 의자 들게 한 뒤 허벅지를 3대씩 때렸고,


	그 상태로 수업을 듣게 했음. 9월 19일 두발단속 돌면서, 뒷머리 끝선이 손에 잡히거나 옆머리가 보이는 학생들은 야구방망이로 맞음.
대원고등학교 (서울 광진구)	두발규제가 상당히 심함. 야자는 고3은 강제로 시킴. 8월 23일 수요일, 고3 학생 하나가 몸이 평소부터 약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 담임을 찾아가 조퇴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담임은 이미 퇴근했고, 야자 감독 교사는 그 학생이 피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보내주지 않았음. 그런데 집에 와서 그 학생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24일 아침) 사망. 학교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은폐를 하려는 듯, 상을 하루만에 끝냈고, 야자감독 교사는 "보내줬는데 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며, 교감은 "상은 하루로 끝내기로 한 것이 맞냐."라고 학생 집에 확인.
수원 여러 학교에 대한 사람이 한 번에 제보한 것	수원효원고등학교, 수원화흥고등학교, 수원권선고등학교 모두 강제로 야간자율학습. 두발규제도 있음. 다른 수원시 소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예체능계 학생 아니면 강제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듣게 함. 3학년의 경우는 일요일까지 강제등교. 화흥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자율학습 동의를 아예 안 받음.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형식적인 동의서에 강압적으로 동그라미 치게 함. 화흥고를 포함해서 보충수업의 경우도 강제로 동의서 받음. 효원고와 권선고는 1학년부터 화흥고는 2학년부터 토요일에 오후 자율학습. 이 세 개의 학교를 제외한 수원시에 있는 학교들도 거의 다 이와 비슷하게 강제로 야자하고 보충수업하고 두발규제를 함.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이 강제로 야자하고 0교시하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서만 없앨 수 없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 제보자는 7시30분부터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이상 학교에서 보내고 다시 학원가고 그러면 정말 집에서는 밥 한 끼 먹기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
장안고등학교 (수원 장안구)	두발규정은 반삭발에 올려치기 정도. 걸리면 엉덩이 체벌. 발목 양말을 못 신으며 밝은 색(흰색, 빨간색)신발이나 가방 착용 금지. 교복 안에 흰색 아닌 다른 색(검정색 회색 전부) 못 입게 함. 체벌은 학생부장이 어떤 여학생 싸대기를 심하게 때림. 거의 엉덩이를 때림. 국어 교사는 종아리를 때림. 김보현 교사는 엉덩이나 발바닥을 때리고 심할 땐 앞머리 잡고 흔들다가 머리도 때림. 싸대기도 때림. 매로 싸대기를 때리는 경우도 있음. 매는 두께 1cm 조금 안되고 폭이 3cm 정도 길이는 35cm정도 되는 걸로 때림. 김보현 교사는 2006년 6월 6일인가 7일에 제보자를 명찰 '짜짜이'로 달았다고 엉덩이를 때림. 제보자가 이게 왜 안 되냐고 물어보자 머리를 때리며 "그럼 이게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말함.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기에 제보자가 "교칙에 안 써있어서"라고 답하자 "교칙에 결혼하지 말라고 써있으면 안 할거냐."라면서 싸대기를 때림. 교감이 지나가자 손을 내렸다 다 지나가고 나자 다시 때리며 20분 정도 혼남. 명찰 때문에만 대략 6-7대 싸대기 맞고 머리 3대정도 맞음. 애들한테 개새끼라고 종종 욕설. 편회철 교사는 매로 엉덩이를 심하게 때림. 아침 교문단속에 걸리면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거나 쓰레기 주워오게 함. 야간자율학습 희망조사하는 것을 다 찬성으로 써내라고 했으며, 몇몇 반은 그렇게 안하면 때리겠다는 식으로 했음. 학교 교칙에 두발자유 선포하면 퇴학시킨다는 조항이 있음.
청명고등학교 (수원 영통구)	1학기 때 수업시간에 교사가 머리 길어보이면 두발규정 상관없이 체벌. 강제이발도 있었음. 2학기가 되자 두발규제를 강화해서 학생들이 불만이 높아져서 교실 불을 켜다 켜


	다 하고 종이비행기를 던지고 운동장에 나가는 등 시위를 함. 다음주에 2차시위를 준비 했는데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소지품검사를 해서 전단지 갖고 있던 주동자를 잡아내고, 선생님들이 지키고 서 있으며 시위를 막음. 이 사건이 언론에 나가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문자 등을 모두 검사함.
태원고등학교 (성남 분당구)	2006년 6월 26일 월요일 두발단속. 두발규정은 앞머리는 눈썹 위 옆머리는 귓구멍을 넘어선 안 되고 뒷머리는 1cm. 두발검사를 하는 날에는 아침등교시간에 1, 2, 3학년 건물 문을 봉쇄하고 각 학년 건물 앞에 해당 학년 학생들을 세워놓음. 교사들은 학년마다 5~10명이 가위를 들고 있음. 머리가 조금만 길어 보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자름. 이번 두발검사 때는 바리깡도 다시 사용. 여학생은 검사를 잘 안 하는 편. 학생들이 두발에 대해 언급하면 체벌.
단원고등학교 (안산)	1 2006년 5월 13일~14일 줌 학교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두발관련 글을 올려서 조회수 1800에 댓글도 150이상 달렸는데, 5월 18일 저녁 때 교감실로 호출받음. 내용에 욕도 없고 자기 생각을 적었으나 교감이 우리학교는 두발자유 생각도 안했고 계획도 없으니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전학가라는 식으로 호통 칩. 강제전학 위협. 당장 삭제 명령.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학교 측에서 글 삭제해버림. 2 2006년 5월 29일 학교 조회시간에 두발 교복 등등을 단속했음. 규정이 귀두컷, 해군머리 정도. 가위로 강제이발하고 머리 길다고 '엎드려뻥쳐'를 수업시간에 시켜서 수업을 못 듣게 함. (안산에서 단원고가 안산공고 다음으로 짧다고 함.) 제보자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주장.
평택중학교 (평택)	3학년 부장이 두발단속하는데 수위가 너무 심함. 게다가 규칙보다 짧게 규제. 규칙은 앞머린 눈썹을 안 가리고 옆머린 귀를 안 덮고 뒷머린 옷깃에 안닿는 것이나 귀두컷이나 반삭발 요구. 귀두컷에서 약간 긴 머리를 한 애들,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자른 애들, 거의 2cm도 안 되어보이는 뒷머리와 1cm도 안 되어보이는 뒷머리를 가진 학생들도 모두 걸림. "이번에도 안 자르면 손 뎀니다."라고 말함. 체벌로 뺨을 때림.
태광중학교 (평택)	머리카락 기준은 앞머리 눈썹 옆머리 귀밑 제보자가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있어 두발단속을 거부하고 맞아가면서도 귀를 덮을 때까지 두자 담임교사가 욕을 하면서 자르지 않으면 바리깡으로 밀겠다고 함. 용의복장 검사할 때 손톱 머리 벨트 등을 검사하는데 걸린 사람은 나오라고 해서 하키 채나 삼으로 때림.
인천남중학교 (인천 남구)	1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마다 학생과에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음. 학생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불렀는데 안 가다가 갔더니 복도에 머리를 박으라고 한 후 그 상태로 몽둥이로 체벌함. 학생과 옆에 빈 미술실이 있는데 거기로 끌고 간 다음에 손바닥을 한 쪽당 40대씩 맞았음. 5대만 맞아도 손이 시퍼렇게 멍이 듦. 등교 정지라며 겁을 주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도 때림. 머리 규정이 처음 들어왔을 땐 뒷머리 카라 안 닿고 귀 안 닿고 앞머리 눈썹 위였는데 완화에준다고 회의 해놓고선 긴 스포츠로 바꾸곤 완화되었다고 함. 더 이상 맞는 게 두려워서 학교가기 싫은 게 이제 지겹다고 호소 2 규정이 뒷머리 카라 안 닿고 옆머리는 귀 안 덮고 앞머리는 눈썹 위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학생과 안효삼 선생님이 그냥 자신이 볼때에 이 학생이 머리가 길다 하면 그냥 잡아다가 때릴하고 머리를 스포츠로 깎아오라고 명령. 어길 시에는 미술실에 끌려가서 양손을 미친 듯이 두들겨 때 피멍이 들게 만든 후 엎드리게 해서 엉덩이를 또다시 뺨. 학생이 두발 때문에 발길 걷어차인 적도 있음. 학생 중에는 심하게 얻어맞아서 스트레스로 인해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까지 간 적이 있으나, 은폐되었음.

	3 학생부장 안효삼 선생님이 심하게 때리고 이중기 선생님이라고 체육선생님인데 때리고 벌 세움. 학생들이 체육 나가기 정말 싫어함. 4 안효삼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머리 규정이 뒷머리 카라 안 닿으면 되고 옆머린 귀 안 넘으면 뒤통도 머리가 스포츠가 아니다싶으면 그냥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몽둥이로 엉덩이, 손바닥을 때림. 특히 주먹으로 2대만 맞아도 광대뼈 쪽이 붓고 상처가 남. 손바닥은 5대만 맞아도 피멍이 드는데 자기 맘에 안 들거나 길다 싶으면 손바닥 40대씩 때립니다 사람을 개 패듯이 막 때리고 온갖 협박에 욕설 정말 싫다고 함.
송도고등학교 (인천 연수구)	  <p>2005년 5월 말쯤 두발자유운동 분위기가 좀 사그라드는 듯하자 두발단속하여 3학년만 200명 이상 걸림. 7월 4일 월요일 담임교사가 아침에 머리 긴 학생들을 잡아서 학생부에 데려가서 가위로 머리를 심하게 자름. 7월 4일 7교시. 담임교사가 가위 들고 교실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혀둔 채 학생들 강제이발. 강제이발한 뒤 내일까지 잘라오지 않으면 바리깡으로 강제이발하겠다고 함. 담임교사가 학생을 보면서 잘린 머리카락을 집어 들고 얼굴에 던지며, "훗, 잘린 머리카락에 뭐 그리 연연하나."라고 비웃음. 2005년 2학기에는, 체육교사가 머리가 너무 길다는 이유로 싸대기를 때림.</p>
도림고등학교 (인천 남동구)	규정에 맞게 머리를 잘라와도 "야비하게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체벌. 거의 반삭발 요구. 머리가 단속에 걸리면 수업끝나고 8교시 때 '뽕뽕이'라는 기합을 1시간내내 시킴. 여기에서 뒤처지는 학생은 즉시 체육담당 김성영 교사가 몽둥이로 체벌하며 욕설. 네이 버 지식인에 도림고 체육교사나 체벌에 대한 답을 달았더니 학교 조회시간에 전체 학생에게 일주일 안에 안지우면 징계시킨다고 사실도 아닌 글을 올린다고 욕설함.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교칙에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선생님들 비방하거나 학교 명예를 낮추는 일이 있을 시에 퇴학이라는 규정이 생김. 제보자와 제보자 친구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두발에 대한 글을 썼는데 교사들이 불려서 삭제 명령. 체벌 강도는, 2005년까지만 해도 맞아서 피부가 멍들다 못해 까매져서 너덜너덜할 정도까지 체벌. 체벌방식은 일단 몽둥이는 여러 가지를 사용. 심하면 20대 정도 맞는데 그렇게 맞으면 피부가 까맣게 됨. 전교생이 거의 다 한 번 이상은 싸대기를 맞음. 버스 사정으로 100명 정도가 지각했는데 한 학생이 버스가 연속으로 와서 지각했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돼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1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학생을 발로 차고 싸대기를 때림. 학부모회의 이후로 비판받았는지 2006년 6월 들어서는 조금 덜하긴 하나, 언제 다시 그렇게 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낌.
대성고등학교 (대전 중구)	지각하면 오리걸음 30분. 실내화가방도 안 들고 다녀도 8시까지 오리걸음. 1학년 별관 입구에서 생활검열을 하는 분은 1학년 부장이신 음악교사와 학생부의 미술교사. 체벌은 '단무지'라는 노란색 봉. 폴스윙 강도로 학생부 교사는 기본 5대. 엉덩이, 아니면 간혹 무릎 꿇린 채로 허벅지. '개기지 못하게' 마구 때리기 때문에 엉덩이 맞으면 피멍. 하루에도 15시간을 넘게 앉아 있어야 함. 보충 같은 경우는 가정통신문도 아닌 설문지

	<p>형식으로 O X 체크하도록 해놓고 X인 학생 교무실에서 지도, O로 바꾸게 함. 보충반이 정해진 후에 강의 교사 선택 및 부모님 동의서 배부하여 사후 위조 강요. 야자는 11시 10분까지 강제. 9시 10분까지는 전원 강제로 9시 10분부터 학원 가는 학생만 빠짐. 야자는 반에서 1명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조퇴형식으로 가끔 빠질 수 있는데 부모의 연락이 없이는 빠질 수 없음. 야자 종치기 1분 전에 한 명이 가방 싸다가 걸려서 열댓명이 20대 체벌.</p> <p>학급 반장 부반장은 성적에 상관없이 뽑지만 학생 간부는 성적순으로 뽑힘. 1, 2, 3학년 반장 부반장들과 학생부장이 학생회의를 했는데 학생부장이 거의 주도하여 학생들 의견 무시하고 교장에게는 학생부장 의견을 제출. 교장은 두발자유를 지지하고 있으나 교감과 학생부장이 학생들과 학부모의견을 두발규제 찬성으로 전달함. 제주도 수학여행 갈 때 사고 안 나게 군기를 잡겠다면서 가기 전에 머리 빡빡 깎도록 지시. 안 깎아오면 체벌.</p>  <p>2006년 9월 15일, 학생 두 명이 가방을 갖고 놀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렸음. 1학년 화학선생님이 던진 학생을 찾았는데 안 나오자 잠시 후 그 학생들을 색출해냈음. 두 학생에게 체벌을 했는데, 한 학생이 아픈 기색을 잘 안 보이자 총 80여대를 때리고서 원래 20대만 때리려고 했는데 더 때렸다고 말함. 그 학생 엉덩이가 흐물흐물해지고 완전 까맣색으로 변해버려서 체벌한 교사와 함께 병원에 감.</p>
경덕중학교 (청주 흥덕구)	<p>교사들이 "너희들 머리 때문에 때리면 신고할 거지. 그러니까 안 때릴 거야. 대신 머리 안 자르면 기합을 주고 남길 테야."라고 말함. 학생부에서 2005년 방학전후쯤 머리 긴 학생들 4시30분까지 남게 함. 일주일이 지나고 안 깎는 학생들은 25명 정도(여자 7명, 나머지 남자)인데, 여자들은 어깨동무하고 동그렇게 모여 있게 하고 남자들은 엎드려뺨 쳐해서 있다가 오리걸음 2바퀴 반.</p> <p>학생부 이창우 교사는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계단에서 머리 안 잘랐다고 싸대가 때림. 지나갈 때 불려서 "니가 대학생이나 머리가 뭐 그렇게 길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위 들고 잘라버린다고 하고 4월달 쯤에 검사해서 걸린 학생 4시30분까지 또 남겼음.</p> <p>국사를 맡고 있는 장경환 교사는 학생부장으로, 국사시간마다 머리 안 자른 사람들 종아리 맞음. 김현진 선생님은 신고학생의 담임인데 방과후 불려서 두발 문제로 지도, 4시 30분까지 일주일정도 계속 언쟁. 학교에서 머리 안 자르면 이제는 5시까지 남기겠다고 함. 손톱 검사나 배꼽 검사하는 학급도 있음.</p> <p>저번 학생회의에서 귀밑 2cm 뒷머리는 카라 밑 2cm로 주장하여 학생들이 찬성했으나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몇 주 뒤 하던 대로 두발단속. 작년에도 학생회에서 두발 자유 전원 찬성했으나 학교는 무시.</p> <p>어깨에 걸치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토트백을 여름에 더워서 등에 땀이 많이 나서, 하나 장만해서 들고 갔더니 한 번만 더 가져오면 압수하겠다고 했음.</p>
진천중학교 (진천)	<p>2006년 6월 7일 두발단속. 두발단속에 걸리면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함. 조퇴시간에 걸리면 조퇴대 앞으로 불려가서 망신을 주고, 교실 안에서 걸리면 머리를 붙잡고 때리면서 "너 이거 멋부리려고 기른 거지."라고 말함. 머리를 깎지 않은 학생은 체벌. 여러 번 걸리면 학생과에 넘겨서 체벌.</p>
청석고등학교 (청주 상당구)	<p>두발단속 기준이란 것은 오직 학주 눈에 이쁘냐 안 이쁘냐이며, 일명 빡빡이 학교로 불림.</p>

	<p>보충수업은 350명 모두 강제. 두발단속 같은 거 걸리면 청석인 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뺨 몇 대 맞고 몽둥이로 맞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말이나 노는 휴일에 근처 산으로 데려가서 기합을 줌. 등산 어찌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합임.</p>
화원중학교 (대구 달성군)	<p>거의 몇 주 또는 몇 달 주기로 전교를 돌면서 두발규정에 어긋나는 두발상태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하러 다님. 간혹 몇 학생 중에는 비인간적으로 맞아서 남학생이 우는 경우도 있었으며 체육실로 끌려가는 학생도 있었음. 더욱이 여기서 걸려서 3번 이상 걸릴 경우교내의 상장을 타지 못하게 하고 있음.</p> <p>학생들의 두발규제 완화에 대한 글이 학교홈피에 올라오자 아침에 대의원 전원을 소집. 대의원 집결 시 대부분의 교장급 교사와 학생부 교사들이 앞 뒤로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학생주임(부장 아님)이 학생들에게 두발규제 얘기 또 한번 나오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폐쇄시킬 것이며 공청회 열어서 2cm로 줄여버리겠다고 협박. 학부모, 교사 대표 총 20명이 너네랑 하면 누가 이기겠냐고 하면서 학생들의 발언의 자유 자체를 영구적으로 침해하려는 태도로 학생들을 협박함. 교장은 학부모 1200여 명에게 전부 찬성 의사를 받지 않으면 두발자유해줄 생각 전혀 없다면서 학생부 교사들이 앞뒤로 지켜 공포분위기 조성한 가운데 대체 뭐가 불편하냐고 대의원들에게 질문함.</p> <p>학생부에 걸린 학생 중에 학생주임에게 걸린 학생 중 일부는 체벌규정(약 8대 정도)에 맞추어 체벌을 당했음에도 엉덩이에 피멍이 났다고 함. 그 중에 반도 못 맞아서 피멍이 났다고 전해들었음. 싸워서 봉사활동하는 여학생을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나는 정문 앞에서 비인간적에 가까운 정도로 강도를 높여 체벌 규정 한계까지 체벌을 줌. 체벌보다는 구타에 가까운 체벌이었음. 체벌 규정에 맞추어 체벌하더라도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말보다 체벌을 먼저 가한다고 학생들은 느끼고 있음.</p>
동평중학교 (대구 북구)	<p>도덕 교사가 6월 19일부터 두발 걸리면 가위 가져와서 머리 깎아버리겠다고 하더니 7월 6일에 가위를 들고 와서 애들 머리를 길어보면 다 때리고 잘랐음. 옆머리를 그렇게 자르더니 뒷머리도 잘라오라고 하고 안 잘라오면 자기가 강제이발하겠다고 함. 결국 7월 10일에 뒷머리도 선생님이 가위로 잘라버렸음. 7월 12일에는 10대를 때렸고, 그 다음 날에는 20대. 도덕교사가 수업시간에 두발단속하여 쇠막대기로 엉덩이 체벌.</p> <p>체육 교사가 자주 체벌. 한 학생이 항의하자 체육 교사가 목을 3번 때림. 공 깔고 앉았다고 학생들 배를 손으로 때림. 육설 자주 함. 1학년 등교시간 7시 40분</p>
영남고등학교 (대구 달서구)	<p>스포츠머리가 긴 편이고 거의 삭발. 매일 아침마다 현관 앞에 선생들이 5-6명씩 서 있으면서 머리 긴 애들 잡아다가 군사 훈련을 연상시키는 체벌을 행함. 기합도 심함. 평소에도 야자 시간에 학생들을 복도로 끌고 와서 체벌하고, 그 시간에 학교 밖에 나가서 머리 깎아오라고 함.</p>
성광중학교 (대구 북구)	<p>두발규정은 짧은 스포츠. 규정은 앞머리 5cm(작년에 3cm, 옆머리 깨끗이)지만, 현실상황에서는 옆머리 0.2cm만 나와도 바로 가위질, 뒷머리 3cm이상이면 바로 가위질 등 참혹함. 2주일에 한 번씩 머리 깎으라고 하며, 옆 뒷머리는 일주일에 한번 깎도록 함. 안 잘라오면 죽인다고 하며, 안 자르고 버티자 엄청 체벌. 특기적성 수업 한 달에 24000원 내며 강제로 듣게 해서, 수요일은 그거 때문에 8교시까지 함. 방학 때도 학교에 나오게 해서 EBS 방송청취를 강제로 시킴.</p>
대건고등학교 (대구 달서구)	<p>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아침에 기합을 받으며, 무지막지하게 패기도 하고 하루종일 수업 못 받게 하며 기합주기도 함. 4주에 1번 단속하는데, 몇몇 교사들은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검사. 머리 자른 지 2주도 안 됐는데 검사한다면 애들 조금이라도 길면 잡아감. 휴대폰 보이면 압수하며, 사생활 하나하나까지 참견하려고 함.</p>

	
<p>천상중학교 (울산 울주군)</p>	<p>두발규제 무조건 기계로 밀어내야 함. 학주 이순현 교사가 교문에서 걸린 사람은 가위로 바로 자름. 잘린 후에 다시 검사 받음. 머리 기계 안 됐다고 담임 조인래 교사에게 학생들 앞에서 뺨을 5대 정도 맞음. 몇몇 교사들 상습적으로 뺨을 때림. 김운섭 한자 교사는 매주 쪽지시험을 쳐서 틀린 개수만큼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밀대로 체벌. 단소로 손톱을 찍기도 함. 6월 22일에는 회초리로 한자 교사에게 팔을 맞았음. 김동욱 체육 교사는 벌 설 때 학생들에게 장난쳤더니 배를 대나무 같은 걸로 체벌. 체육복 하복을 안 입고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림. 교복을 입고 온 학생은 5대 넘게 체벌. 체육복 동복 입고 있으면 2~3대. 슬리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함.</p>
<p>대송중학교 (울산 동구)</p>	<p>머리에 관심을 가지면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서, 수행평가 태도점수에 두발상태가 들어감. 두발 걸리면 수행평가 태도점수를 깎음. 2006년 8월22일, 체육교사가 뒷머리가 교복에 닿는 사람이나 옆머리가 귀를 덮는 사람을 모두 뺨을 때림.</p>
<p>함창중학교 (상주 함창읍)</p>	<p>전교회장과 부회장이 두발규제 관련 토론회를 건의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 현재 규정도 학생의견 전혀 수렴하지 않음. 강제이발이 수시로 일어남. 제보자가 아는 강제이발 당한 숫자 2005년 초기에 아마 10여명정도? (2005년도전학년) 2005년 후기에 3~4명 강제이발 (2005년도2학년) 2006년 9월 20일 18명 강제이발(2006년도3학년) 저희학교 총학생수가 140명이고 3학년은 60명인데, 18명이 9월 20일에 잘렸음. 작년에 담임이 몇 명을 강제이발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도 강제이발을 하고 있음. 두발단속에 반발하면 교사의 말에 불응하는 것으로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p>
<p>문명고등학교 (경산)</p>	<p>과거 두발규정이 3cm였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5cm로 바뀜. 그러나 실제 한 달에 한 번 단속할 때는 3cm도 안 되는 머리를 "왜 안 깎았어 이새끼"라고 하며 강제이발함. 밥을 조금 남겼다고 주먹으로 학생을 때림. 휴대폰 소지 금지. 책걸상 시설이 열악하고 스쿨버스가 유료.</p>
<p>안동중학교 (안동)</p>	<p>학생부장선생님은 개방적이고 학생들을 아주 잘 이해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지만 체육 교사들이 매주 월요일이면 머리 긴 학생들을 교문 앞에 세워놓고 자르라고 함. 안 자르면 강제이발하겠다고 함. 교칙엔 앞머리가 눈썹에 닿지 않고 구레나룻은 귀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으면 안되는데, 체육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함. 학생이 머리가 길다고 '불'(싸대기, 컷방망이)을 맞고 강제로 잘렸음. 학교 안에 이</p>

	<p>발관도 있음. 체벌도 심해서, 체육 선생님 한명은 한 때 권투선수였는데 애들이 모이라는 신호인 호루라기를 불고 난 다음에 축구나 농구를 몇 초라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애들을 불러서 정말 심하게 체벌. 처음엔 얼굴로 주먹을 몇 대 날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며, 넘어뜨린 다음엔 발로 차면서 일어나라고 하고 다시 주먹을 날림.</p>
<p>해성고등학교 (전주 완산구)</p>	<p>  한 달에 한 번 두발검사하는데 걸리면 체벌함. 교내 봉사활동도 시킴. 학교 안에 이발소 설치해서 요금 4천원에 학교 내에서 직접 자름. </p>
<p>이리고등학교 (익산)</p>	<p>휴대폰 금지. 자율학습시간에 mp3 금지. 적발시 mp3는 영구압수. 휴대폰은 해지통지서를 가지고 와야 함. 두발규제는 옆머리 뒷머리 깨끗히 깎음. 귀뚜캣 허용. 학생들 반이 반삭발. 익산에 3개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중 이리고가 규제가 심한 편. 교사들은 기분에 따라 10대건 100대건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게 해놨지만 항의글을 올리면 교사들에게 찍힘.</p>
<p>전북기계고 (익산)</p>	<p>두발규정은 앞 머리 눈썹 안 닿게, 옆머리 손가락을 귀에 대봐서 안 닿게. 뒷머리 카라 안 닿게, 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단속은 더 심하게 해서 완전 스포츠만 용인. 체벌을 하진 않지만 두발단속에 걸리면 벌점을 주고 벌점이 쌓이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퇴학. 머리 때문에 걸리면 15점 벌점을 주는데 120점 되면 퇴학처분. 두발규제 때문에 퇴학당한 학생이 많음. 재작년부터 두발건의를 하거나 두발자유화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다 걸림.</p>
<p>완도고등학교 (완도)</p>	<p>방학하기 전에 염색을 했는데 안 걸린 채 방학. 개학한 날 학교에 가는데 아침에 교문에서 두발단속. 학생부장이 머리를 보고 염색했다고 아침에 교무실로 불러서 욕설. 청소년특별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 가지고도 욕설을 함. 머리 자르고 다시 검게 해서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자 다시 불러서 혼냄. 결국 학교 보건실에서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짧게 자름.</p>
<p>광산중학교 (광주 광산구)</p>	<p>이번에 교장선생님과 학주 선생님이 바뀌면서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두발규정이 바뀌지도 않았으면서 심하게 단속. 두발규정은 구레나룻은 귀 넘지 않게 옆머리 귀에 닿지 않게 앞머리는 눈썹 넘지 않게 뒷머리 옷깃에 닿지 않게. 그러나 두발단속을 할 때 앞머리 검사는 손으로 앞머리를 눌러서 앞머리가 눈썹에 닿으면 각서를 쓰고 자르게 함. 뒷머리를 검사할 땐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여 머리를 검사하며 옆머리를 자주 잡아당겨 귀에 닿으면 각서에 지장을 찍고 머리를 자르게 함. 각서를 안 쓰겠다고 하면 체벌하고 징계. 그리고 각서를 쓰고 안 잘라온 사람은 각서를 1번 더 쓰고 안 잘라오면 징계. 그 결과 학생들은 모두 스포츠나 반삭이 됨. 머리가 길어도 교사가 좋아하는 학생은 나무라지 않지만 학교 개학식때 머리가 길어서 한 번 찍혔던 아이들은 머리를 아무리 잘라도 조금만 길면 바로 각서를 쓰고 머리를 자르러 가야 함.</p>
<p>천곡중학교 (광주 광산구 월계동)</p>	<p>개학 시기에 용의복장 검사를 실시한 뒤 거부하는 학생을 학생과로 불러가서 체벌함. 해당 학생들이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자 교장은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다"며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인권침해가 재차 고발될 경우 "IP 추적 등을</p>

	<p>통해 적발해서 유급시켰다"고 학교전체 방송을 통해 학생들을 위협함.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시간까지 교사들이 교실에 찾아와 머리카락을 묶고 있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먹이고, 어떤 경우에는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가기도 함. 9월 18일부터 일정점수 이하를 받은 학생은 보충수업을 강제로 실시함. 빠질 경우에는 벌점을 받고, 관계없는 수행평가 점수까지 감점되며 체벌까지 행해짐. 또한 수시로 시험 문제를 내서 틀린 개수만큼 때리기도 함.</p>
<p>대성고등학교 (원주)</p>	<p>교사 주관에 의한 자의적 두발단속. 두발단속 걸린 사람 3학년 학생부장이 학생부 안에서 몽둥이로 엉덩이 3대 때리는 등 체벌. 방식은 나무로 된 몽둥이로 풀스윙. 교사가 보충학습 희망원에 강제로 동그라미 치게 함. 학교 게시판에 두발자유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적 있는데 삭제 당함. (신고학생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호소.)</p>
<p>거진중학교 (고성 거진읍)</p>	<p>두발단속에 걸린 학생을 방송으로 호명하여 머리를 안 자르면 "넌 왜 안 잘라. 넌 머리 잘라도 계속 와서 무릎 꿇고 있어."라면서 쉬는 시간마다 와서 무릎 꿇고 있게 함. 머리를 안 자르자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함. 2005년 12월 학생들이 두발규제 놓고 투표를 했는데 선택지가 1번 더 짧게 2번 지금 규정대로 3번 두발자유(염색, 펌 등 제외하고)였음. 투표결과 학생들 90% 이상이 3번을 선택했으나 2006년에 오히려 더 규정이 짧아졌음. 현행 두발제한이 여자는 견갑골까지이며 그 길이를 초과하면 묶고 다니게 되어 있음. 남자는 그 전까지는 뒷머리는 5cm 정도 구레나룻은 귀뿌리까지 길러도 되었으나 지금은 뒷머리를 바리깡으로 올려 쳐야 하며 구레나룻을 없애도록 강화.</p>

솔직히, 이것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집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인권이란 단순히 이런 충격적인 (사실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 보장'을 '시혜적'으로 '베푸는' 교사가 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넣기로 결심한 것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폭력에도 우리는 관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위의 사례들이 비단 특정한 몇몇 교사, 몇몇 학교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자신도 그런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해 볼까요.

#2

훌륭한 교사를 꿈꾸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학생이 에비고사에게

오병헌(동성고등학교 3학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보통 괜찮은 교사라고 하면 '인간적이면서, 잘 가르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사들은 훌륭한 교사라고 불리면서 칭찬을 받지요. 제가 다니는 동성고에도 그런 선생님들은 많습니다.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선생님들이죠. 평상시에만 말이죠. 제가 일인시위를 하며 교문 앞에 섰을 때에 전 훌륭한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싸웠던 저에게 훌륭한 선생님 중 한 분이 찾아오셨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학교의 명예를 깎아먹은 배신자야. 이쯤 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뒤!" "아니나,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을 토론하려는 것이 아니니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 뒤에 찾아왔던 훌륭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까? 라고 고민하면서 보기에 편한 방법들을 대안이라고 제시할 것입니다. '학생을 때리지 말자.' '학급운영에서 애들 말 잘 들어줘야지' '애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 거야.' 같은 것들이지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학교와 맞서면 어떻게 할까?' 라던가 '다른 교사가 학생을 폭행할 때에 어떻게 할까?' 혹은 '교사는 그 위치 자체로 폭력이 아닌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사라는 직위 자체가 학생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온다는 걸 쉽게 잊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징글맞은 교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를테면, 학생들과 평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어색하게 학생들의 취미 등을 흉내 내는 경우지요. 그런 선생님들은 흔히 "나는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학생들은 먼저 마음을 닫아버려"라고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교사들은 언제나 학생을 동등한 상대가 아니라 지식이 모자란 녀석 정도로 여기며 깔았습니다. 제가 교사보다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때조차 말이죠. 이런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교사라는 계급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곤 십수년 동안 배웠던 대로 교사 앞에서 노예근성을 펼쳐게 되지요. 이 사회에서 교사의 폭력적 권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징계 받습니다. 이용석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교권이란 것이 교사의 불필요한 권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학생들과 같아지려 하면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먹입니다. 반면, 학생들은 이런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에 답답함을 덜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읽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징계 받지 않고서도 좋은 교사 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 선생님들은 대체로 자신은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 교사에게 맞은 학생이 하소연하면 이렇게 말하죠. "어이쿠 안됐구나. 하지만 그건 그 선생님의 교육방침이라 내가 뭐라 할 수 없구나. 3년만 참고 지내렴." 학생은 3년을 참고 교사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리겠지요. 제가 그러하였듯.

고3을 마치면서 느끼는 건 교사 중에서 위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사-학생의 관계는 이 사회에서 폭력적인 관계로 규정지어져 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불의에 맞서지 않고 자신만 잘하면 되지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

거나, 학생을 한 단계 아래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등이 위선자들의 대표적인 의식들입니다. 학교와 싸우면서 위선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위선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무지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투쟁으로 나서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해주자.'식의 생각들을 하는 반면,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학생과 교사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학생도 교사도 같이 배우는 거다.'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취직하고 몇 년간만 멋진척하다가 위선자의 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 훌륭한 교사로서의 길을 걷고 싶다면, 학생과 교사의 위계적 계급관계를 언제나 잊지 말고, 학생과 교사 구분하기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간단한 실천과제로는 모두 존댓말쓰기나 모두 반말쓰기 등의 언어생활도 들 수 있겠고, 학교 안에서 투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뭔가를 해 주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연대하여 투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교사-학생의 관계란 지금 체제가 유지되는 한 폭력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체제를 깨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교재로는 청소년들에 의해 발간되는 '오답 승리의 희망' (<http://cantabile.mireene.com>)이 있습니다.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문점이나 토론하고 싶은 점 등을 기고하고 논쟁을 벌임으로써 교사-학생의 장벽이 없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닫는 학생은 없습니다. 몇 번을 두들겨도 평등해지지 않는 위계적 질서에 질린 학생만이 있을 뿐이죠.



1.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청소년 인권'을 고민하는 예비 교사들의 부탁으로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때마침 제가 일하는 전교조 밀양지회에서는 '학생 인권, 바로 알고 실천하기'라는 주제를 걸고 '인권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거울삼아 지나온 제 교직생활을 비추어봅니다. 여러모로 답답하고 또한 암담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타하는 것은—특히 우리 교육 현실을 두고서는—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을 타하기보다는 한 자루의 촛불을 밝히는 것이 훨씬 가치롭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그러하겠지만, 저 또한 아이들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행동하는' 교사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폭력'을 실천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이런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입니다. 선생님께서 따끔하게 가르쳐서 단 것을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게."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았을 때, 간디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단 것은 몸에 좋지 않고 돈도 많이 들어. 먹지 않는 게 좋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긍했지만, 맥이 좀 풀

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쉬운 말씀을 하시려고 일주일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그때 간디는 답했습니다. "실은 나도 단 것을 좋아했는데, 그걸 끊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여러분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느 후배 교사와 대화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결국 교사의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했습니다. 저는 적이 실망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언행일치'라는—물론 언행일치의 가치를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교훈밖에 떠올리지 못한 것이 저는 못내 아쉬웠던 겁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런 류의 이야기들에 식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예민해지고, 교육에 대한 생각이 깊은 곳을 향할수록 간디가 남긴 이 일화는 참으로 귀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교육이라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이 모든 일들의 비밀, 혹은 신비가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저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인권'을 교육운동 진영이 제기하는 의제의 하나로 국한해서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인권'은 아이들 일상의 전체, 그리고 교육의 일반 원리와 맞닿은 매우 보편적인 의제입니다.

인권과 가장 인접한 주제어는 '폭력'입니다. 그것은 체벌과 두발단속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무시, 냉소, 인신의 자유에 대한 구속, 사회적 편견과 부조리까지 아이들의 삶에 가해지는 유형 무형의 억압을

이계삼 - 경남 밀양 밀성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밀양지회 일꾼. ygs0720@hanmail.net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체벌은 여전히 만연해 있지만, 지금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외관상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폭력은 소멸하기보다는 세련된 외양으로 '진화'합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세련된 방식으로 가해지는 무형의 폭력이 아이들을 더욱 깊이 병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폭력의 근원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폭력'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수많은 성현들이 거기에 대해고, 저 또한 그분들의 말씀을 붙잡아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폭력은 '무지(無知)에서 옵니다. 개별 존재에 가해지는 구체적인 폭력은 개별 존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아이들 세대 전체에 가해지는 사회의 폭력 또한 '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집단적 몰각에서 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논리도 성립합니다. 폭력의 대칭어는 아마도 '비폭력-사랑-이겠지요. 비폭력, 혹은 사랑의 바탕은 그 대상에 대한 '알'입니다. 잘 '아는' 존재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사 폭력이 행사되더라도 거기에는 반성과 구원의 계기가 이미 내재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제맘대로 분류법'이지만, 저는 교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교단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입니다. 대개 교실에서 아이들은 앉아 있고, 교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약간 돌워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교무실로 돌아오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 교사들입니다. 교육현장에는 실은 이런 교사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교단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아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한다/

하지 않는다, 단정하다/너저분하다, 교사의 지도에 긍정적이다/부정적이다... 이 사항들은 대개 2진법 객관식이고, 한 존재와 관련한 수백 수천가지 요소 중에서 불과 서너가지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대개 교단에서 받은 '인상'으로 그 아이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박약한 설명력으로 인해 극히 단순한 도덕적 구도로 환원됩니다. '좋은 아이' 혹은 '나쁜(문제 있는) 아이'로 말입니다. 교사들은 순종적이고, 외관상 별 하자가 없으며, 성적이 좋은 아이를 '좋은 학생'이라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단계의 교사라면, '아이들이 앉은 자리로 찾아가는 교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겨우 문턱 하나를 넘었을 뿐이지만, 그 단계로만 나아가도 아이들은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교단에서 바라볼 때는 말 한마디 안 할 것 같고 몹시 사나운 인상이었는데 가까이에서 말을 붙이면 어린애같은 친진함을 가진 아이가 있는가 하면, 더할 수 없이 모범생처럼 보이던 아이가 실은 극히 자폐적인 내면을 가진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학교 교실이라는 공식적이고 한정된 시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의 모습일 따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유형은 '교실 바깥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는 교사'입니다. 가깝게는 남자 아이들과 농구 한 게임을 해 봐도 아이들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학원 다녀오는 아이들과 만나 아이스크림을 하나 나누어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여도 아이들과 완전히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속한 시공간을 충분히 알고 겪은 교사는 아이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란, 혹은 아이들에 대한 지도란, 이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교사들과 교육행정가들은 이처럼 "아이들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아이들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스쿨 폴리스를 고용해서 퇴역 경찰을 학교에 고용해도, 감시카메라를 학교 복도, 학교 근처 골목길, 아니 온 천지에 매달더라도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없는 것은 이런 시도들이 학교 폭력의 근원에 대한, 아이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무시에 바탕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 더러 목격했겠지만, 도저히 체벌이라 할 수도 없을 만치 무섭게 아이들을 때리는 교사의 내면에는 당장의 '화'만큼이나 아이를 때리는 행위로 인해 옥죄어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절박한 충동이 뒤섞여 있습니다.

교사의 지혜로움은 연륜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직에서 지내는 동안, 비록 오랜 세월 교직에 있었지만 여전히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그 아이에 대한 판단을 종결짓는 교사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고분고분한 아이'를 좋은 학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몇 년 안 되는 경력임에도 아이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아이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교사들도 보았습니다. 50대임에도 20대의 영혼을 가진 '청년 교사'가 있고, 20대에도 50대의 영혼을 가진 '늙은 교사'가 있습니다.

4.

이제 사회의 폭력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흘려보낸 세월을 추체험하면서 그것으로 지금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비상한 주의집중이 필요합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울창이적 시

절'을 잘 잇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처럼 자라나는 세대의 삶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시선이 집단적인 도그마로 화석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 사회의 내부는 지독하게 폭력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아동 학대를 가장 끔찍한 범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어섯살부터 시작되는 '인신의 구속', '과도한 학습노동' 같은 기본권 유린을,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편집증적인 욕망'을, 그 속에서 12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사회입니다. 유사 이래 아동에 대한 이런 끔찍한 규정을 가진 사회가 또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사회는 아이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어떻게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완전히 헝클어져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친구를 사귀고 싶고,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싶은 자연스런 본능은 기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기와 절제의 전사'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폭력에 둔감하며,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회가 되었을까, 더러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어른 세대의 성장기 체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기의 시간, 움터오르는 '에로스'를 틀어막고 견뎌야했던 기억들은 상처로 아로새겨집니다. 상처는 인간성의 여러 요소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을 억눌렀고, 상상력은 억압당하며, 따라서 다른 삶의 가능성은 스스로 차단됩니다. 그리고 상처는 다음 세대로 전이됩니다.

요컨대,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비폭력적인 삶이야말로 인간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우리 사회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예외적인 멘탈리티를 집단화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폭력의 원환'(圓環)을 끊고, '정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의 충동을 안으로 삼키고 다음 세대에게는 비폭력을 가르치면서 또한 현실의 폭력과 맞서 싸우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5.

'비폭력'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꼬마아이 앞에 마주 선 간디가 자신을 '마하트마'(위대한 영혼)가 아니라 '저 꼬마처럼 단 것을 즐기는 어른'임을 인정하면서 일주일간의 자기 수행을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사들은 대개 보범생입니다.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임용고사 제도가 생긴 이후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지만, 교사들은 다채로운 인생 체험이 없고, 임용을 위해 몇 년간 애써 터득한 기술 말고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의 신분에 대한 자긍심—안도감이라 해야겠지만—은 걱정스러울 만큼 높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다채롭고 난해한 존재입니까. 그래서일까요, 교무실에서는 교사의 지도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을 탓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병상련의 정들을 나누는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는 스스로가 이미 학교 교육이라는 '폭력'의 일부임을, 자신의 내면에도 폭력의 상처가 아로새겨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체로 형성되는데 다가온 계기들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바탕에서 아이들의 삶과 이 세상을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고교시절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범생'이었지만, 대학 시절 4년 내내 열등생으로, 방황하는 영혼으로 살 수 있었음을 차라리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임용고사에 탈락하여 패배자의 자리에 서 본 기억에, 또한 가까운 이들의 죽음과 같은 시련을 젊은 나이에 겪었던 것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을 이미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을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비폭력은 내용과 형식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공손하고 친절하고 말투, 조용하고 따뜻한 대화, 명상, 사색적인 독서와 글쓰기 따위는 우리 교육에 극히 결핍된,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폭력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학의 제1원리처럼 형식과 내용을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입니다. 간디는 젊은 시절 보어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점령한 장사치들의 판을 뒤집어엎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함을 뽐내면서도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위선적인 바리새파 종교인들을 향해 '뱀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독설도 아끼지 않았습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이 아직 법안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안이 설혹 통과된다 하더라도 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는 공식적인 언술체계와 실제 학교 현장의 관행 사이에 실로 심각한 문화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시행된지 6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학교 교육 현장에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은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분명 있지만, 우리 교육에는 법과 제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심층이 너

무나 깊고 넓습니다. 이 심층이 형성되는데 든 만큼의 반정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폭력의 '형식'을 위한 실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비폭력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실천—우리 교육 안팎에 거미줄처럼 포진해 있는 폭력에 대한 토론과 문제제기, 물리적인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가(禪家)의 공안(公案) 같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사냥꾼을 피해 숨을 곳을 찾습니다. 나그네는 토끼를 숨겨줍니다. 좀이어 사냥꾼이 나그네에게 토끼가 간 곳을 묻습니다. 나그네는 지금 있는 곳은 갈림길입니다. 이때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임의의 방향을 가리키면서 사냥꾼을 그곳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해를 입지 않고 토끼도 지킬 수 있으므로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에게도 토끼를 쫓는, 혹은 쫓을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자리는 서로의 운명이 부딪친 자리입니다. 결국, 나그네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폭력의 근원—사냥꾼의 사냥을 중지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설득일 수도, 물리적인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그네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사는, 이 나그네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교사가 되려 할까요. 오직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유, 즉 정규직 평생 직장으로 교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양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비폭력'은 간디의 어법을 빌어 말하자면 교육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자, 교육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비폭력'은 아이들의 영혼의 성장과 자유를 위해, 교사 자신을 위해, 그

리고 수십년간 내려온 이 '폭력의 원환'(圓環)을 누군가에서부터는 깨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갈급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비폭력을 위한 실천은 '자기 희생' 말고는 달리 다른 길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꽤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청탁한 분의 의도에 많이 어긋난 글이 된 것 같아 조금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감 없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긴 시간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어 고맙습니다.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 <청소년인권 자료집>)

청소년의 공간을 찾아서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교육공동체 나다, 하자센터

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통과를 위한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사진(상, 우상) 9월 23일 반전집회에 참여한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 (우하)

지난 9월 6일, 수원 청명고등학교 등굣길에서는 이색적인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교문 검사, 강제이발, 체벌 등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을 담은 사진들이 이젤에 설치되어 있고, 그것들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준비된 스티커와 폭죽 등을 나눠준다. 그리고 이내 상황을 파악한 교

사들과 학부모들이 활동가들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버린다. 교실에 도착한 용감한 학생들은 교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에 몸을 내민 채 '두발자유'를 외치며, 아까 받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 라는 스티커를 창문 옆 벽에 붙인다. 바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청소년들의 제보를 받아 학생인권침해의 현장으로 출

동하는 '스쿨어택 2탄, 찾아가는 청소년인권사 진전'의 모습이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올해 2월 19일에 열린 '청소년인권활동가 워크숍'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안으로서 활동가들의 상설연대체가 제안되어 개인 활동가와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조직이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고질적인 한계로 장기적 계획과 활동가 부재, 대중적 기반의 부재, 결론적으로 민간청소년인권운동의 미형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런 한계지점을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는 활동가들 사이의 일상적 소통을 증진시키고 운동의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또한 운동 내 문제가 되어왔던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 사이의 관계설정문제를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관계를 재구성하여 청소년인권운동진영을 형성시키고 더욱더 단단히 다져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덧붙여,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불복종운동을 조직하고 전개, 지원하여 학교와 사회를 바꾸어내는 것을 활동 방향으로 잡았다.

설정된 목표 속에서 네트워크는 교육, 공동연구, 기획사업 등 총 3가지 부분에서 상반기에 활동을 진행하였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교육부분의 경우 청소년인권운동에 입문하고자 하는 활동가와 운동에 이미 발을 담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월 말에 '파란만장 청소년인권캠프'를 진행하였다. 공동연구의 경우, 이론화의 첫 과제로 그동안 분명 존재하고 흘러온 '사실'들이었지만 잊어졌던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드러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흘러간 역사를 통해 현재 운동의 미래를 밝히고자 한 역사연구의 결과물들은 지금 인권운동사랑방의 매체인 인권오름에 한 달에 한번 기사형식으로 연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획사업의 경우, 올 한해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두발자유운동과 학생인권법통과 운동을

결정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학교현장으로 직접행동을 가한다는 운동 방향 속에서 '5.14 청소년인권행동의 날- '두발자유 바로 지금', '두발자전거 school attack!!',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터져 나오는 청소년들의 외침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내 시위가 일어났었던 양동중학교 학생들의 징계를 저지하고, 1인시위를 한 동성고등학교 오병현 학생의 징계저지와 학내인권보장을 위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상반기 청소년인권운동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네트워크는 하반기 사업으로 전국청소년인권활동가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8월에 있었던 전국행진을 통해 시도했던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12월에 청소년인권운동에 뜻을 두고 있는 전국의 활동가들을 한자리에 모아내는 것으로 다시 시도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전국적인 저항을 펼쳐내어, 억압의 왕국이었던 학교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한 판 싸움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그 억압해체의 운동을 학교에서 사회로 끊임없이 확장시켜내는 작업을 통해 사회와의 한 판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 카페 : cafe.daum.net/youthr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632-656530 전누리



2 교육공동체 나다

이 지구 안에는 나다라는 또 다른 별이 숨어 있어요. 그 곳 사람들은 지구별의 희망을 찾아 모여든 외계인 아닌 외계인들이죠. 바깥 사람들은 차갑게 그들을 “나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나다인들은 지구가 더 살기 좋은 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성남에서 <청소년을 위한 철학교실 나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나다는 또 다른 외계인 청소년들과 함께 인문학/철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안적인 토론수업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사고의 깊이를 가로막는 무수한 장애물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나다의 틀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4년 나다는 <교육공동체 나다>라는 새로운 이름과 더불어 청소년과 교사를 포함한 성인들이 교육의 주체와 대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교육 공동체의 일원

으로 함께 운영되는 비영리 대안교육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다는 현재 아이들의 양심을 붕어빵 마냥 찍어내는 도덕교과와 같이 정답과 순응을 강요하는 국가주의 교육의 첨병들을 손봐주기 위한 숨고르기와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없는 '나다'의 뜻

- ① [동사] 내가 세상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말. 스스로 생각하여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다. 나는 나다!
- ② [대명사] 나와 다른 사람들, 그 모두를 껴안을 수 있는 커다란 주체.
- ③ [명사] 나(裸)?다(多). 자신에게 씌워진 가면과 사회의 숨겨진 부조리를 모두 벗겨내는 행위.
- ④ 나는~이다. 주어와 술어 사이에 무수하게 채워질 가능성을 이 세상 모든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교육공동체 나다!

* 홈페이지 : nada.jinbo.net

3 일, 놀이, 자율의 문화작업장 - 하자센터

하자 소개

하자센터(haja center)는 연세대학교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학습 공간으로 공식 명칭은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입니다. 하자센터는 1999년 12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문학적 성찰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경영 마인드를 갖춘 문화작업자를 길러내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자센터는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5개 작업장 (대중음악, 영상, 생활디자인, 웹, 시민문화 작업장)을 두어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장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문화작업을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하며 나아가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9월에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 삶을 설계하려는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하여 하자작업장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하자작업장학교는 학생 수가 최대 100명을 넘지 않는 규모의 작은 학교이면서 맞춤형 학습, 네트워크에 의한 학습, 작업을 통한 학습 등을 도입한 새로운 도시형 대안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작업장에서 자기 전공 작업을 하면서 학교의 안팎에서 인문학과 외국어 등을 학습하고, 자치 활동 프로젝트, 인턴십 프로젝트 등을 합니다.

2003년부터 졸업생이 나오면서 청소년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출범한 재활용상상놀이단은 하자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활용상상놀이단은 호주의 생태 퍼포먼스 그룹인 허법의 정신과 기술을 전수받아 발전시킨 공연단으로 하자센터의 장인들과 작업

장이나 작업장학교의 청소년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원들은 워크숍 강사나 악기 제작자로 성장하여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 살자'는 하자의 모토를 구체화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재활용상상놀이단의 뒤를 이어 영상제작단이 활동을 시작했고, 글로벌 여행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작업도 기획에 들어가는 등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자센터는 작업장, 하자작업장학교, 대형 프로젝트의 세 축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자센터는 이러한 성과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출판이나 연수를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공공적 기능을 다하려고 합니다. 보다 활력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의 모색을 위해, 2006년에는 하자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호주의 허법은 물론, 미국의 사운드플레이, 디자인 어 소사이어티, 브라질의 아프로 브라질리안 댄스 등의 장인작업자들이 하자에 머무르면서 자기작업의 creative commons를 진화시켜 가는, '세계의 작업자들이 오가는 통합작업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현재 하자센터는 청소년들과 세계의 문화작업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자 일곱개의 약속

- ①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도 할거다
- ② 나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안한다
- ③ 어떤 종류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을 거다
- ④ 내 뒤치다꺼리는 내가 할거다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⑤ 정보 때문에 치사해지지 않을 거다 / 정보와 자원은 공유한다
- ⑥ 입장 바꿔 생각할 거다 / 배려와 친절
- ⑦ 약속은 지킬 거다 / 못 지킬 약속은 안할거다

* 홈페이지 : www.haja.net

‘교사틱’을 넘어 - 인권활동가가 예비교사에게

유운종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교사를 분류하는 데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겠으나 여하간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교사를 한 번 분류해보자면 세상에는 학생 인권침해를 심하게 하는 ‘나쁜 교사’와 ‘나쁘지는 않는데 교사틱한 교사’와 극소수의 ‘교사답지 않은 좋은 사람’이 있다.

‘나쁜 교사’는 올 여름 무렵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많은 체벌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뭐, 굳이 언론을 탈 정도의 짓을 하지 않더라도 애들을 일상적으로 때리거나 두 발단속을 철저히 한다면(강제이발 포함) 학생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일들을 자주 한다면 충분히 ‘나쁜 교사’가 될 수 있다. 나쁜 교사가 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다.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들을 처음에 한 대만 때려도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점 무더진다나...

‘나쁘지는 않는데 교사틱한 교사’라 함은 비록 나쁘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사틱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사이다. 교사틱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교사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실천 방식, 혹은 교사라는 위치 그 자체이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은연중에 스스로를 학생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둔다. 이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교사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해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틱함을 이루는 요소에는 교사로서 갖기 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작은 변화에도 쉽게 만족하는 것)이나, 동료 교사에게 별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문을

도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두 합쳐 ‘교사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교사틱한 교사 중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좋은 교사도 있고 그저 그런 평범한 교사도 있다.

‘교사답지 않은 좋은 사람’은 매우 적다. 그건 교사라는 지위가 만들어내는 한계제조차 크게 엄매이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교사에게 주어지는 교육목표 또한 그 달성 과정에서 체벌 등의 폭력과 명백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만 한다면 요구되는 교육목표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인간적인 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적이기 위해 때론 교사에게 강제되는 틀을 깨는 사람이다.

왜 마지막 거만 교사가 아닌 ‘사람’인지 의아할 것이다. 그것은 “교사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식의 비난은 아니다. 설명하자면 긴데 간단히 말하면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이다.”라는 거다. 아직 잘 전달이 안 되었을 듯하여 지금부터 그 긴 설명을 시작해보겠다.

교육공동체 나다의 한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를 대충 요약해서 옮겨오겠다. 다들 아버지자 딸 셋한테 바지를 한 뼀 줄여달라고 했더니 큰 딸은 “내가 만이니까 내가 해야지.”라며 한 뼀 줄이고 둘째 딸은 “언니는 집안일 하느라 힘들거야. 내가 해야지.”하고 한 뼀 줄이고 셋째 딸은 “내가 막내니까 내가 해야지.”라면서 세 뼀을 줄여냈다는 옛날이야기,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한다. 원래대로면 아버지는 세 뼀 준 바지를 보면서 “허허. 여름에 반바지로 입어야겠구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글썽 이 가족에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 안 드는가? 보통의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한 뼀 줄여달라고 했을 때 세 딸이

논의를 거쳐서 누가 줄일지를 정했을 것이다. 이 가족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다.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 네 명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에만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미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있어서 그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와 세 딸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유연하게 행동한다면 멀쩡한 바지가 반바지가 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음을 물론이요 아버지가 직접 바지를 줄이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로다. 교사와 학생이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둘 사이의 소통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교사와 학생이 단순히 교사 대 학생으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옵션이 아닌 필수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한 교사에게 교무실에서 뺨을 맞았다고 해보자. 교사틱한 교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든 옳지 않다고 생각하든 다른 교사에게 잘 간섭하지 않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그러나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라면,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말리거나 말 한 마디라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을 때리는 교사가 무슨 살인마도 아니고.)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나는 “교사틱” 이상으로서 “좋은 사람”을 둔 것이다.

아,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인식은 일상적인 실천 속에 드러나야 한다. 한 교사가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떤 때 학생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화가 나는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 쌤통이다.”에 가까웠다. 아,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힘들구나, 아 그거 좋은데, 또 해야지. 그 이전까지는 교사로서 행동하다가 스승의 날을 맞아 이벤트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요행은 바랄 수 없다는 소리다.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글을 쓴 것은, 딱히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교사가 되시면 ‘교사답지 않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아는 교사 분한테 물어보니 예비교사인 사범대 시절에는 그저 임용고시 불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했다. 그런 마당에 교사가 된 이후까지 진지하게 상상하고 고민해보자고 해봤자 얼마나 유효한 제안일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렇기에 더욱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교사가 된 이후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대개는 “교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나 “좋은 교사가 되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구조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교사틱함”을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성은 현재 이미 교사인 사람들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교사가 아니기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있다고도 할 수 있기에 그다지 ‘교사틱하지 않은 예비교사’분들에게 그러한 경각심을 기대한다. 단지 좋은 교사가 되는 건, 쉽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 앞에서 언제나 인간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가? 자신의 고충과 상처 받는 경험을 털어놓아도 학생들이 그것을 비웃고 쌤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는가? 자기 눈앞에서 사람(학생)이 사람(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맞을 때 그것에 태클을 걸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학생을 ‘잡지’ 않는 교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묻고 싶다. 교사틱함을 넘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되려고 노력할 것인지.

예비교사 어린이·청소년인권 연대선언

2006년 11월 3일 선언 참가자 일동

인간은 날 때부터 존엄하며, 그 존엄함에 합당한 기본권을 가집니다. 기본권은 그녀가 누구든 간에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본권을 누림에 있어 어린이·청소년 또한 예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은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발제한으로 상징되는 신체에 대한 탄압부터 시작하여 체벌, 강제로 실시되는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소지품 검사, 집회참가 금지까지 어린이·청소년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인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돈 안주고 일 부러먹기, 임금 떼어먹기, 반말쓰기, 참정권 제한하기 등등. '보호'라는 명목아래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이 제한받고 침해받은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비교사인 우리들은 이런 학교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할 때마다 침통해 집니다. 두발이 잘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을 당하고, 사생활을 침해받고,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우리들은 이제 두발을 자르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위치가 우리들이 꿈꾸는 교육을 실현시키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 세상에 만연한 폭력과 억압의 고리를 끊고 참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추구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약속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명목으로 옳지 못한 행위들이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참된 교육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표합니다. 자율성과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고 침해받는 현실에 분노를 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야 할 어린이·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엄과 권리가 박탈된 시체처럼 여겨질 때 그녀들과 만나야 할 우리 또한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비교사들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의 주체임을 다시 생각하며, 그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의 위치에 서지 않겠다는 성찰의 자세로, 나아가 지금껏 부당한 인권침해에 맞서 싸워온 어린이·청소년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천부적 인권의 주체로서 존중한다.
2.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나이, 성별, 장애, 신념, 종교, 가정환경, 학교 성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두발을 비롯한 신체는 전적으로 개인의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4. 어린이·청소년은 인격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체벌과 이와 유사한 물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

- 다.
5. 어린이·청소년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일기장 검사, 휴대폰 압수 등을 하지 않는다.
6. 정규교육과정 외 시간에 대해 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은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진다. 우리는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
7. 어린이·청소년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반성문을 강요하지 않는다.
8. 어린이·청소년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신문발행이나 자발적인 결사체 조직, 집회 등을 적극 지지한다.
9. 학교 내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학생회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그에 합당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10. 어린이·청소년들의 노동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부당한 노동이 강요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1. 어린이·청소년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성찰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의 실수를 존중하며, 실수하리라는 예상으로 그녀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현실을 방조하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는 학생 인권 침해의 실태를 조사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

- 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는 예비교사들이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배울 수 있도록 양성 과정을 개편하라.
3. 국회는 현재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마지막으로 험난한 학교현장에서도 참교육을 꿈꾸며 실천하시는 선배교사들에게 제안합니다. 많은 선배교사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는 아직 현장을 잘 모릅니다.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학교가 우리 사회 내 부당한 인권침해의 장소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잘되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면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교육을 상상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폭력과 억압을 끊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상상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에 아파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들과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선배교사들의 더 많은 선언을 기대합니다.



“Fly 예비교사 Fly” with 청소년

주형

솔직히, 이번 작업을 하면서 (혹은 청소년인 권활동가 네트워크의 일정에 결합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든 생각이 있습니다.

‘...교사, 정말 하기 싫어진다.’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직에 있어봐라, 너희가 애들을 겪어봐야 한다, 나도 처음에는 체벌에 반대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찌면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과 걱정이 드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병헌 씨, 이계삼 선생님, 윤종 씨의 고민이 맞닿아 있는 지점 -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자체가 가지는 폭력성 역시 고민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 추상적으로 공감하기도 쉽지 않지만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철인이 아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과 나의 선언들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약속을 하고 운동을 지속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학교라는 구조가 가지는 폭력의 문화에 길들여진 교사가 되는 것과 실수나 잘못을 했어도 반성하고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의 간격만큼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

우리는 역설적일 수 있고 모순적일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혹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민’하겠다는 것을 약속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청소년인권 강연회’에서 질의 및 응답시간에 연사로 오신 활동가께서 하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분명히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면서 분명히 할 수 없는 부분들,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체벌이나 규제를 통해 감춰져 있는 것뿐이다. 정말 우리의 고민의 시작은 체벌이나 규제를 통해서 감춰져 있던, 교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가 아닐까. 체벌이나 규제의 대안도 역시 그 ‘인정’이 우선이 있는 것이다..”

이 자료집을 읽는 분들께 한번쯤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청소년과 함께 마주 설 수 있는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자료집의 목적은 충분히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에필로그를 마치면서, 그동안 저와 함께 담배와 커피와 야식을 동반해서 (각자의 일을 하며) 밤을 지새워 준 r.s와, 임기 말까지 수많은 사업들로 고생하고 있는 집행부, 쉽지 않은 길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권 활동가들, 그 외 제 곁에서 힘을 실어 주는 많은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ps. 11월 11-12일에 “청소년인권 워크샵”이 있을 예정입니다. 청소년인권에 대해 고민을 더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주형, 019-421-5077)에게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